"고구려 승랑대사의 삼론학 中·日 대승불교학 기초"

한국불교학회 '승랑 상승의 대승진리론' 세미나

중국 대승교학의 선구인 삼론학(三論學)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고구려의 구법승 승랑(僧朗·생몰연대 미상)이 중국불교에 미친 역사를 조명한 세미나가 교계에서 처음 열렸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인덕)는 21일 동국대 소강당에서 '승랑 상승(相承)의 대승진리론'을 주제로 제29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갖고, △대승 반야사상이 동점(東漸)·이해·정착되는 과정 △승랑에 의해 중도론(中道論)으로 개진된 내용 △승랑 상승으로 형성된 삼론종(三論宗)이 중국불교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했다.

'승랑대사의 중도론'을 통해 김인덕 교수(동국대 불교학부)는 "불교의 중도(中道)가 승랑대사의 '삼종중도(三種中道)'에 의해 가장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다"며 "중국 제일의 석학으로 저작도 많이 한 길장(吉藏)도 오로지 승랑의 가르침에 의해 정법 진리를 올바르게 밝혀내고 있는 사실에 큰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랑대사가 전개한 삼종중도는 세제중도(世諦中道)·진제중도(眞諦中道)·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의 세가지 진리성으로, 세간과 출세간의 진리를 뜻하는 진속(眞俗) 이제(二諦)의 개념에서 '중도'라는 불교 근본진리를 새롭게 변증해 낸 것. 승랑은 '중생의 인연법은 공이고, 가명(假名)이며 중도의(中道義)다'고 한 삼시게(三是偈)에 바탕, 삼종중도론을 전개했다. 김교수는 "승랑의 삼종중도론은 '반야' '공성(空性)' 파악 으로 흐르는 중국불교계에 '중도'라는 불교 정법 진리를 알려 '자행이타(自行利他)의 대승이념을 철저히 실현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삼론정맥(三論正脈) 청의학통(靑衣學統)의 사적 전개'에서 승랑 이후 삼론학의 역사적 전개를 밝히는 가운데 승랑을 조사(祖師)로 하는 계통을 '청의학통'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일컬어 눈길을 끌었다.

김교수는 "승랑을 비롯한 역대 삼론종의 학장(學匠)들이 청의, 푸른 장삼가사를 입었다는 사실을 옛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청의를 입은 학승들에 의한 삼론학의 정통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붙여보았다"고 밝혔다. 〈속고승전(續高僧傳)〉 등에서 승랑 이후 법랑(法朗), 길장, 혜관(慧灌)으로 이어지는 제자들이 모두 청의를 입었던 사실이 보인다는 것. 이어 김교수는 "승랑 이후의 삼론학은 당대(唐代)에 이르러 현장(玄奬)이 전래한 유식법상학(唯識法相學)의 흥성으로 쇠퇴했으나 외형적 모습만 사라졌을 뿐 중국교학 연구의 체계확립에 선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삼론학이 고구려 승려 승랑에 의해 이룩된 것이 틀림없음에도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삼론종의 학승과 관계문헌을 국내자료에서 볼 수 없으나 해외 사료(史料) 등을 통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고, 삼론학이 중국불교학의 선구가 됐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적 혜학(慧學)이 되어 일본에까지 전하는 등 교학과 선 수행의 근저가 됐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 계환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은 '반야사상의 동점과 그 이해'를, 김용표 교수(동국대 불교학부)는 '라집삼장(羅什三藏)에 의한 대승정착', 김하우 교수(고려대 철학과)는 '라집문하 승조(僧肇)의 반야공관'을 각각 발표했다.

김정은 기자

◇21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정확한 불교원전 번역위해 한문-교리-동·서양 철학 연구"

은정희 교수 지적

◇은정희 교수

정확한 불교원전의 번역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이뤄져야할까.

이에대해 23일 열린 제6회 백련불교아카데미에서 은정희 교수(서울교대·윤리교육)는 '한문 원전번역에 관한 문제'를 발표하고 "장기간의 한문연수와 불교기초교리연구, 동·서양철학의 병행연구 등이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교수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된 불교가 대중속으로 파고드는데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불교원전이 우리말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며 "중국불교의 역사가 인도 원전을 중국어로 번역한 역사와 등가(等價)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번역의 중요성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불교원전 번역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포함한 중국의 제가서(諸家書)와 불가(佛家)를 바탕으로한 장기간의 한문연수. 둘째, 초기불교에서 구사·유식·화엄·선에 이르는 불교학 기초교리 연구. 셋째, 동양과 서양 철학 일반에 대한 연구 병행. 넷째, 철저한 주석과 번역작업을 위한 번역대상서와 관련 전문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교수는 "이상의 번역 작업을 위해서는 팀을 구성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전번역을 하겠다는 꾸준한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정〉

"불교유학생 관리 철저히"

이경순씨 불학硏 세미나서 주장

◇이경순씨

일제시대 불교 유학생의 동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불교유학생들은 불교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자주성 수호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대불교의 승가교육'을 주제로 25일 열린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스님) 춘계세미나에서 이경순씨(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 연구원)는 '일제시대 불교 유학생의 동향-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을 통해 "1910년대부터 파견된 유학생 수는 1920년대 그 수가 증가하면서 배태된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 문제는 현대 한국불교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일제시대 출판된 불교잡지 등에서 추출한 360명을 대상으로 일제시대 불교유학생의 양상을 분석한 이씨는 당시 나타난 문제점으로 △본사간의 무분별한 유학생 파견 경쟁 △유학생 관리의 소홀 △취처(取妻)를 비롯한 유학생의 세속화 경향 △귀국후의 환속 등을 지적했다.

이씨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들이 환속해 버림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재들과 엄청난 양의 삼보정재를 손실케 했다"며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본다면 오늘날에도 교단차원에서 유학생들의 귀국후 그들을 교단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제의 종교정책(김순석·호서대 겸임교수) △일제하 승가교육과 근대화(정혜정·동국대 강사) △1930년대 강원제도 개선문제(김광식·독립운동사연구소) 등이 발표됐다.

학술단신

종교교육학회 세미나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는 29일~30일 대진대 국제회의장에서 '근대에 있어서 한국종교의 개혁사상'을 주제로 98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에 있어서 개혁사상'(김광식·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등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02)278-6956

성철硏 7개 윤독회 지원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98년도 학술연구비를 지원할 윤독회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윤독회는 불교경학연구회(일지스님·수국사), 부산대 불교독경회(이진오), 구결학회(고영근·서울대 교수), 경주남산윤독회(이만·동국대) 등 모두 7곳으로 각각 1백만원씩의 연구비 지원을 받게된다.

'종교연구' 15집 발간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는 춘계학술지 〈종교연구〉 제15집을 발간했다.

97년 추계학술세미나 '해방후 종교 50년'에서 발표된 △해방후 50년의 한국 종교사회학 연구사 등 12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02)880-6237

국제소식

티벳 판첸라마 中억류설 '증폭'

中 정부 '보호'시인

지난 95년 5월 티벳 제2의 정신적 지도자 판첸 라마로 지명된 뒤 행방불명된 게둔 초키니마(8)가 현재 중국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의 감금설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판첸 라마의 행방불명설이나 감금설을 부인해오던 중국 당국은 최근 "니마 소년은 현재 중국의 한 지방성에서 당국의 보호아래 잘 있다"고 밝혀 그가 중국에 있음을 공식 시인했다.

한편 판첸 라마가 행방불명된 직후 중국 정부의 감금설을 주장하며 유엔 인권위원회에 개입을 요청한 티벳 망명정부 및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에 그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니마 소년을 11대 판첸 라마로 임명하자 즉각 그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다른 티벳 소년을 판첸 라마로 지명해 티벳을 비롯한 세계 전지역 라마교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국가 민주운동

티벳 망명정부 사이트 등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 전세계에 민주화 운동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이 티벳, 베트남, 미얀마 등 불교국가의 반독재·민주화 투쟁의 강력한 도구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름하여 '사이버 파워(Cyber Power)'. 필리핀의 민주화 투쟁을 의미하는 '피플 파워(People Power)'에서 유추된 이름이다.

컴퓨터와 모뎀, 인터넷 주소만 있으면 지구상 대부분 지역에서 즉시 생생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도 바로 개진할 수 있어, 특히 언로(言路)가 막혀있는 아시아 불교국가들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인터넷 통신을 통한 민주화 투쟁의 원조는 티벳. 1959년 중국 강점 이후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운 티벳은 △망명정부(http://www.tibet.com)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치·사회, 종교·문화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티벳 독립의 국제적 여론 형성에 공헌하고 있다. 또 美 영화배우 리처드기어가 공동회장으로 있는 △티벳을 위한 캠페인(http://www.savetibet.org) 사이트는 달라이 라마의 독립운동을 측면에서 돕고 있다. 이 사이트는 중국 주석 강택민에게 편지 보내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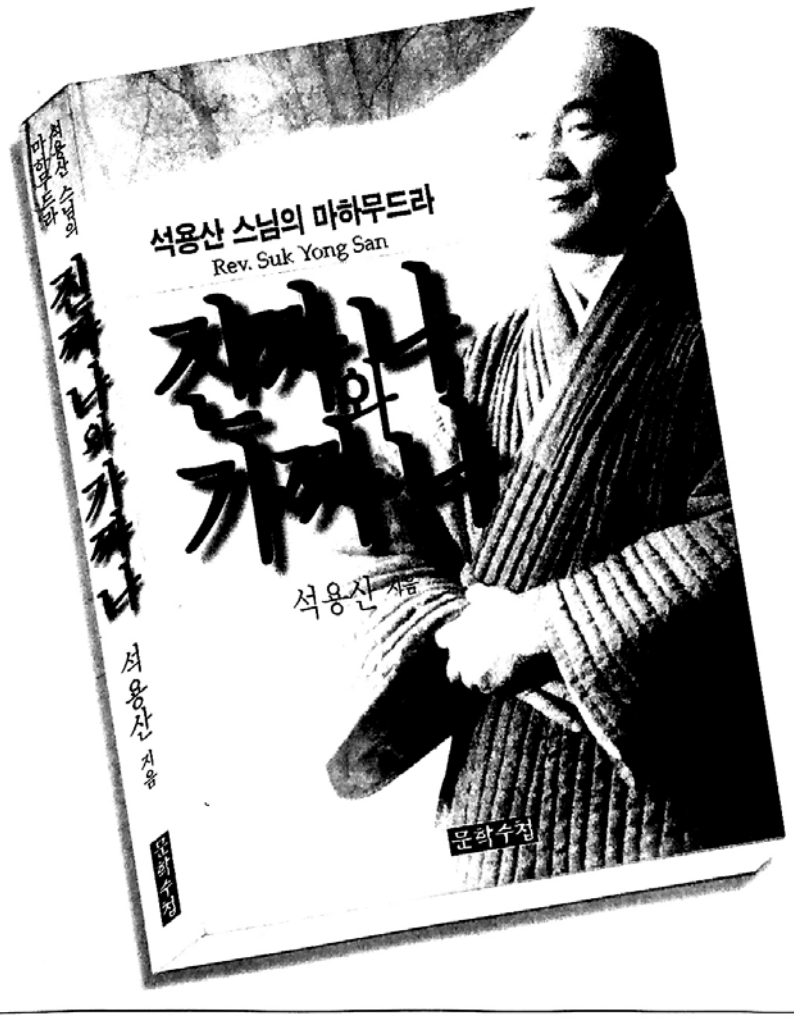
동남아에서 인터넷 통신을 통한 민주화 투쟁의 원조는 미얀마. 지난 95년 미국에서 창립된 △자유버마연합(http://www.freeburma.org)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1백여개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인권운동가와 세계 26개국 관련단체들이 연결되어 있어 세계적인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다.

작년 훈센 총리의 유혈 쿠데타 이후 언론 암흑 시대로 돌아간 캄보디아에선 미국내 망명단체가 개설한 △통신망(http://www.kreative.net/knp)이 민주화투쟁을 선도하고 있다. 이 곳에서 제공하는 쿠데타 주모자 훈센 이름을 딴 '캄보디아 민중 대 훈센' 서비스에서는 양측의 대결 상황이 매일 전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통신이 시작된 베트남의 경우 △자유베트남 연합(http://www.fva.org) 등 여러개의 인터넷 통신이 있다. 과거 '보트피플'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이제 미국을 위시해 여러 국가에 사는 베트남인들이 제각기 인터넷을 개설,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북부지역에서 일어난 관리들의 부정과 주민들의 항의시위 사건은 매스컴에는 보도가 안됐으나 한 통신 이용자가 인터넷 통신으로 알려 전세계에 소개됐다.

최근 외환위기 사회 혼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인터넷 사이트는 지하 정당인 인민민주당이 주축이 돼 만든 △인도네시아-L(http://www.indopubs.com/archives).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하루 이용자가 평균 13만명에 이르렀다. 컴퓨터를 접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인터넷에서 제공된 다양한 문서들이 복사·배포돼 읽혀지고 있다고 한다.

훈센이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은 자체 △홈페이지(http://www.cpp.com.kh)를 개설, 훈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내용의 소식과 사진을 열심히 싣고 있으나 이용자는 별로 없다고 한다.



왜, 침묵했던가?

일평생 쌓은 모든 것을 다 던져주면서도, 한마디 대응없이 수행에만 몰두한 것은 내 전생의 죄업과 금생의 인과를 믿었기 때문이다.

석용산 스님의 마하무드라
Rev. Suk Yong San
진짜 나 가짜 나

인도에서 히말라야 설산에 이르기까지
구루들과 숨어 사는 성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음의 고행길에 오른 석용산 스님의 구도록!

수행자가 발우 하나, 옷 한 벌이면 족하다 하였건만,
왜 이렇게 많은 인연을 갖게 되었을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밑바닥 욕심 때문이었을까?
하나 같이 가슴에 못을 치고 달아나는 저것은 무엇인가!
—본문중에서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석용산 지음 | 신국판 350면 | 값 8,000원

문학수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TEL: 790-5999(대) FAX: 790-6656